

이제 기억의 화신이 되는 경험의 권위자가 되어라.

활화산 같은 요가로, 모든 이에게 빛과 힘의 광선을 보내주고, 협조해 주어라.

오늘, 밥다다는 그의 앞,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 있는 영혼들의 작은 세계를 보며 기쁘다. 비록 이 세계는 작지만 아주 사랑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세계에 있는 영혼들 각자가 고귀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 영혼들은 수백만 중에서 한 줌 정도의 영혼들이다. 이 영혼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권리를 가진 이들도. 밥다다는 각 자녀를 보며 즐겁다: 모든 자녀가 왕인 자녀이다. 밥다다는 각 자녀를 자아-주권을 가진 자, 그리고 세계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로 만들었다. 지금 이때엔 모두가 자아 주권을 가진 이들도, 즉 그들은 마음, 지각, 산스카라, 신체감각들의 왕이다. 그들은 감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또한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 자녀들 각자는 너희가 너희 마음과 산스카라의 주인이라고 여기느냐? 너희가 때로는 너희 마음의 주인이고 때로는 마음이 너희의 주인인 것이 아니다, 그렇지? 너희는 “내 마음”이라고 하지, “마음인 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에게 속하는 것들의 주인이다. 그 마음이 때때로 주인이 되지 않는지 체크해라. 지금 이때, 밥다다는 각자를 자아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들의 자리에 앉혔다. 지금 현재 너희는 자아 주권자이며, 미래의 왕국은 어쨌든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2중의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밥다다는 각 자녀가 자아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과 함께 자아 존중도 가진 것을 본다. 그러니 “나는 자아 존중을 가진 영혼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앉아라, 그러면 참으로 긴 자아 존중의 목록이 너희 앞에 있는 걸 볼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아 존중의 화환이 너희 앞에 나타난다, 그렇지 않느냐?

밥다다는 자아 존중의 화환을 각 자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자아 존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아 존중의 다양한 칭호들이 너희 의식 속에 떠오를 것이다, 그렇지? 영원한 형태 안에서 너희의 자아 존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저 기억만 해라. 너희들의 너희의 영원한 형태 속으로 들어갔느냐? 각자의 자아 존중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빛나는 영혼이다”라는 것이다. 아버지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특별하게 빛나는 영혼들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늘에도 역시, 일부 어떤 별들은 특별한 광채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나는 영혼들이다. 너희들은 자신의 영원한 형태를 기억하느냐? 1초 만에 너희 자신을 영원한 너희의 형태에 안정시킬 수 있느냐? 이제 너희 자신을 1초 동안 그 영원한 형태에 안정시켜라. 너희들은 아주 도취된다! 이제 앞으로 전진해라; 너희는 세계 사이클의 시작 부분에 들어왔다. 이 훈련을 해라: 황금시대 초기의 너희 형태를 보아라. 그것은 참으로 고결한 형태인, “행복의 화신”이다. 그것은 모든 성취의 화신이 되는 형태이다. 슬픔의 이름이나 흔적도 없다. 심지어 원소들조차도

아름답고 사토프라단하다. 그저 너희의 신인 형태를 경험해라!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왕, 위대한 영혼 또는 정치가들 중에서도 모든 성취의 화신인 사람을 하나라도 보았느냐? 그러니 너희의 신인 형태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켜라. 너희는 자아 존중 안에 있는 것을 즐긴다, 그렇지 않느냐? “나는 신인이다.” 밥다다가 이 훈련을 이끌고 있다. 그 다음에 내려와라: 그것은 무슨 시대냐? 동시대에도 역시, 너희의 자아 존중은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너희의 형태는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너희의 형태를 볼 수 있느냐? 모든 이가 아주 많은 신봉과 규율로 너희를 숭배한다. 다른 누구도 그렇게 규율 있는 방식으로 숭배 받지 못한다. 종교의 창시자들, 구루, 정치가, 배우, 어떤 누구이든 그런 규율로 숭배되진 않는다. 그러니 너희의 자신의 자아 존중을 보았느냐? 그것을 경험했느냐? 자, 이제 합류시대로 오너라. 너희들 모두 사이클을 돌고 있느냐? 뒤에 앉아 있는 이들, 너희는 사이클을 따라서 돌고 있느냐? 손을 들어라! 너희들의 자아 존중을 보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아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느냐? 합류시대에 주인인 신이 친히 너희 자녀들의 삶을 순수성이라는 특질로 채워준다. 이 순수성은 불멸하는 모든 유형의 행복들로 가득한 광산이다. 누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신 자신이다. 심지어 지금도 너희는 아버지에게서 순수성이라는 특질을 실제적인 증거로 받았다. 이제 체크해라! 순수성은 모든 성취의 기반이다. 너희들 모두 순수성을 통해서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되었다. 그러니 체크해라: 나는 모든 힘을 성취했는가? 일부 자녀들은 말한다: 아버지는 모든 힘을 주셨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힘이 가끔은 약간 늦게, 상황이 끝난 뒤에 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나? 아버지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었는데도 필요한 때 그것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라는 인식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오직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린 경우에만 그 명령이 복종된다. 어떤 힘에게 지시할 때마다, 먼저 체크해라: 나는 인식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자아 존중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인식의 자리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켜라, 그러면 필요할 때 모든 힘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왜냐하면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가 너희를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강력한 자아 존중을 훈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는 자신의 자아 존중을 보았느냐? 합류시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너희는 귀향의 여정에 오를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너희가 하루종일 이 훈련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몇 번이고 거듭해서 시간을 내라. 밥다다가 자아 존중의 화환을 너희에게 걸어주고 너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밥다다는 너희에게 자아 존중의 권리를 주었다. 그러므로 그 자아 존중이 너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다. 단순히 너희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라.

밥다다는 모든 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규칙적인 하루 일과표를 정해라. 가끔씩, 자아 존중의 인식의 형태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켜라. 예를 들면 너희가 트래픽 컨트롤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아 존중의 인식을 위해서도, 처음 시작된 시기부터 귀환의 여정까지를 인식하도록, 일과 중에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두어라. 걷거나 움직이는 동안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그저 마음만으로 자리에 앉으면 되기 때문이다. 밥다다는 보았다, 그리고 앞서도 너희 모두가 요가를 한다는 얘기를 너희에게 들려주었지만,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냐? 미묘한 때의 상태를 보면서, 두 배로 작용을 할 활화산 같은 요가가 지금 필요하다는 말을 앞서도 너희는 들었다. 첫째로 너희는 낡은 산스카라들을 화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너희는 산스카라들을 죽이긴 하지만, 불에 태우진 않는다. 그것들은 죽은 다음에도, 때때로 깨어난다. 라반을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불에 태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는 때때로 너희의 집중적인 노력을 감소시키는 너희의 낡은 산스카라들을 화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활화산 같은 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다. 활화산 같은 요가를 통해서 너희는 빛과 힘의 형태가 되고, 둘째로는 너희가 그 형태로 있기 때문에 너희의 광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협조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 모두 너희의 요가를 활화산 같은 요가로 변화시켰느냐? 이제 때에 따라서, 모든 영혼들에게 너희의 협조가 필요하다. 암릿 벨라에서, 밥다다는 각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

밥다다는 너희가 계속해서 아주 좋은 목표를 가지고 용기도 유지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너희가 암릿 벨라에 가졌던 주의는 낮 동안에 대부분 줄어든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가 행위를 하느라 바쁠 때와, 카르마 요기로서 행동을 행할 때 차이가 생긴다. 너희는 단순히 행동을 하는 이가 아니고, 요기의 삶을 사는 이들이다. 삶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지, 가끔은 있고 가끔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밥다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일반적으로, 너희들 중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과목에선 합격했다. 사랑의 과목에서 아버지는 너희들 대다수가 “나의 바바, 나의 바바”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 대다수는 사랑의 과목을 통과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떤 과목에서 합격해야 하느냐?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과목이다. 너희들 모두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너희 모두 아버지와 같게 되길 원하느냐, 아니면 아버지는 아버지로 남고, 너희들은 단지 자녀이기만 할 것이냐? 너희는 아버지와 대등해져야 할 것이다. 사랑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너희가 틀림없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너희들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만일 그렇다면, 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랑을 가지느냐? 좋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사랑을 가진 것처럼 밥다다는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손을 들어라! 너희는 이 믿음을 가졌고 또 손도 아주 잘 들었다. 밥다다는 이것을 보고 있다.

밥다다는 각각의 자녀들 모두가 행복하게 보여지길 바라며, 너희의 얼굴과 활동을 통해서 행복의 행운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너희의 얼굴이 많은 봉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밥다다는 너희가 지금부터 이것을 목표로 삼길 원한다. 지금이 플래티넘 주빌리여서 모든 이가 봉사하려는 열의와 열성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얼굴을 통해서 봉사하려는 열성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나날이 예민한 때가 틀림없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때에

너희의 얼굴이 영혼들을 명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밥다다는 암릿 벨라에 순회 여행을 했다. 그가 무엇을 봤느냐? 너희 모두 각자의 관심을 갖고 앉아 있지만, 전체 모든 권위 중에서 가장 큰 권위는 너희가 직접 경험한 것의 권위이다. 바바는 너희가 앉아 있는 걸 보았지만, 너희는 경험의 권위를 가져야만 한다. 너희는 그 인식을 갖고 앉아 있지만, 그 인식의 화신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너희는 잠시 동안 경험의 권위자가 되는 희열을 경험한다. 너희는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식의 화신이 되고 그 경험에 넋을 잃는 것, 이것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의 권위가 모든 권위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인식의 화신으로 머무는 것은 경험이라고 불린다. 그러니 그 경험 속에 깊이 빠져라. 너희 인식 속에 간직한 형태를 경험하며 머물러라;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어서 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경험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어떤 특정한 형태에 대한 인식의 화신으로 머문다; 그러니 그 경험에 넋을 잃어라. 그 경험은 너희 노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밥다다는 너희들이 등수대로 경험의 권위자인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경험의 권위자가 되는 훈련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라. 경험의 화신이 되는 단계는 언제나 내면에 합쳐져 있는데, 그런 영혼의 얼굴과 활동이 봉사를 한다.

오늘, 밥다다는 자녀들의 기록을 보고 있었다. 첫째로 너희가 성질과 산스카라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화산 같은 요가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라. 너희들이 너희의 성질이라고 부르는 산스카라가 지금도 아주 자주 작용을 한다. 그것만 빼면 밥다다는 흡족하다. 무엇이 흡족하냐? 너희들은 밥다다가 무엇에 흡족한지 아느냐? 밥다다는 너희가 멀리를 들어온 것을 보았다. 오늘날 너희는 일과표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너희들의 주의가 늘어났고, 너희의 산스카라에 의한 긴장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밥다다는 앞서도 긴장(텐션, tension)이 있을 경우엔 어느 때든 그저 에이(A)자만 붙여서 주의(어텐션, attention)로 만들라고 말해주었다. 모두가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확고한 약속이다. 우리는 함께 돌아갈 것이고 함께 통치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행복하냐? 아니면 어쩌다 가끔씩만 행복하냐? 가끔 행복한 게 아니고 언제나 항상 행복한 이들은 잘 생각해본 후에 손을 들어라! 앗차. 너희들은 생각한 다음에 손을 들고 있다. 행복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속하는 것을 왜 잃어버려야 하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느냐? 모든 센터가 장애 없이, 그리고 낭비적인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아니면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냐? 지금까지 밥다다는 어느 센터에서도 그들의 센터와 그들의 동반자들이 끊임없이 장애로부터 자유롭다고 하는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너희 자신만이 아니다, 너희의 동반자들까지다. 또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왜냐하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이들도, 마지막에 와서 집중적인 노력이 되어 앞서 갈 모범이 될 수가 없다. 너희 모두, 너희 대다수가 앞서가야 할 이들이다. 밥다다는 너희들 대다수가 멀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자가담바가 그녀의 실제 생활 속에서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실천해야 한다. 그녀는 그런 목표를 간직했고, 그런 노력에 주의를 기울였다. 선발대에 들어간 너희들의 디디와 다디들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 모두가 묻고 있다: 완성의 문이 언제 열릴까요? 단 한두 명이 문을 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문을 열 시간을 가까이 데려오려고 노력해라. 완성된다는 것은 시간을 가까이 데려온다는 의미다. 앓차.

밥다다는 모든 곳에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주고 있다. 그것과 함께, 밥다다는 너희 모두에게 두 달 전에 주었던 숙제를 상기시킨다. 왜냐? 일반적으로 이런 낭비적인 생각들 때문에 너희의 노력이 집중적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기억으로 밥다다는 모든 곳에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지금 합류시대의 시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하다!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모든 보물들을 받는 것은 오직 합류시대뿐이다. 합류시대의 매 1초 1초가 대단하다. 그러므로 합류시대의 가치를 언제나 너희 시각에 간직해라. 합류시대의 1초는 너희가 아주 큰 성취를 얻게 해준다. 너희에게, “당신은 무엇을 받았습니까?”라고 묻는 사람에게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우리 브라민들의 가슴에는 결핍이 없다. 우리는 원하던 것을 성취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해라, 집중적인 노력가가 되어 시간을 가까이 데려와라. 앓차. 밥다다는 모든 이가 열의를 가진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 이 열의를 끊임없이 계속 늘려라. 앓차.

축복: 너희 자신의 모습으로 너희의 신봉자들에게 빛의 왕관을 비전으로 보여주는 특별히 사랑받는 신인이 되어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을 때 너희는 순수성을 약속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빛의 왕관을 받았다. 이 빛의 왕관에 비하면 보석들이 박힌 왕관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 말, 행동 속에 계속해서 순수성이 더 많이 스며들게 할수록 빛의 왕관은 더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신봉자들 앞에서 너희는 특별히 사랑받는 신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슬로건: 밥다다의 보호의 장막 아래 변함없이 머물러라, 그러면 장애의 파괴자가 될 것이다.

*** 옴 산티 OMSHANTI ***

아비약트 신호 - 다른 이들을 드높여주는 정신을 받아들여서, 너희를 모욕한 이들도 드높여 주어라: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이 하는 모든 과업에 협조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바바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그를 모욕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따라라.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순수한 동기와 긍정적인 느낌을 가져라. 어떤 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세계 시혜자 영혼이라고 불릴 것이다.

특별 공지사항: 매달 3번째 일요일의 요가 수련. 오늘은 이 달의 3번째 일요일입니다. 형제자매들께서는 모두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집단적으로 앉아서 요가를 하십시오. 자신의 평화로운 모습에 안정해 있으면서, 태양의 심연으로 내려가서 깊고 깊은 지고의 평화와 차분함을 경험하십시오. 모든 영혼들에게 평화를 기부하는 봉사를 하십시오.